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주간 고용지표, 견조한 노동시장 재확인 일부 고용여건 악화 의견도 제기
 - 미국,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가 지침 공개, 외국인 잔가치도 요건에 따라 세액 공제 가능
 - 유럽 보건당국,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 및 제재 강화를 반대
 - 중국, 내년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할 방침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통화긴축 완화 기대, 증시 과매도 인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주가 상승[+1.8%], 달러화 약세[-0.5%], 금리 하락[-7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지수는 경기연착륙 예상 및 저가매수 유입 등이 원인
 유로 Stoxx600지수는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 증가하며 0.7% 상승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일부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 등이 영향
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5%, 1.1% 상승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 동안의 가격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 등이 반영
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6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59.4원, -5.1원) 0.3% 하락, 한국 CDS 상승

		12/29일	12/28일	전일대비			12/29일	12/2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849.3	3,783.2	1.75%	국채 금리 10y	미국	3.81%	3.88%	-7bp
	유럽	430.35	427.46	0.68%		독일	2.44%	2.50%	-6bp
	중국	3,073.7	3,087.4	-0.44%		영국	3.66%	3.66%	0bp
	일본	26,094	26,341	-0.94%	CDS 5y	한국	54bp	53bp	1bp
	한국	2,236.4	2,280.5	-1.93%		중국	74bp	75bp	-1bp
	달러지수	103.99	104.46	-0.46%	위험 지표	EMBI+	-	368	-
환율	유로화	1.0661	1.0612	0.46%		VIX	21.44	22.14	-3.16%
	엔화	133.03	134.47	1.08%		WTI유	78.40	78.96	-0.71%
	위안화	6.9643	6.9819	0.25%	원자재	구리	382.9	383.2	-0.08%
	원화	1,264.50	1,267.0	0.20%		금	1,814.9	1,804.4	0.59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주간 고용지표, 건조한 노동시장 재확인. 일부 고용여건 악화 의견도 제기

- 미국 12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2.5만건을 기록해 전주(21.6만건) 대비 소폭 늘었으나 역사적 기준에서는 여전히 적어 수요 우위의 노동시장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다수. 4주 평균은 22.1만건으로 전주(22.13만건)에 비해 감소
- 다만 연속실업급여 청구건수는 171.0만건으로 전주(166.9만건) 대비 증가하여 금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. 이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승세를 향후 구직이 점차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
- 고용여건 악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가 발생(Spartan Capital Securities)했으며, 최근 해고를 발표한 대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도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. 해고된 노동자는 퇴직급여 등으로 신규실업급여 청구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(Jefferies의 Thomas Simons)
- 단기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해고된 실업자들을 상당 부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나, 이와 같이 이원화된 노동수요가 영원히 지속되기는 어려울 가능성. 다만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기의 연착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
- 한편 연준은 내년 실업률이 4.6%(11월 3.7%)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, 이는 실업자가 현 수준에서 150만명 증가한다는 의미. 하지만 '10년 이후 3~4개월 연속 일자리가 감소한 경우는 없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,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가 지침 공개. 외국산 전기차도 요건에 따라 세액 공제 가능

- 재무부는 세액공제 가능 전기차에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혹은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도 포함. 다만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

■ 러시아 외교장관, 우크라이나와 전쟁 종결을 위한 대화는 불필요

-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러시아 군대 철수 및 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언. 전문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일부 수복했으나 이번 전쟁은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

■ 유럽 보건당국,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 및 제재 강화를 반대

-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(ECDC)는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 및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은 정당하지 못하며 여타 국가들의 코로나19 관련 완화 움직임과도 상반된다고 평가. 다만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첨언

■ 중국, 내년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할 방침

- 재정부에 따르면, 당국은 재정수지 적자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발행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와 소비 부문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방침.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

■ 일본은행, 예정에 없던 2회의 채권매입을 발표. 완화기조 유지 의지를 반영

- 계획하지 않았던 채권매입을 2회 시행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.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은행의 국채수익률제어 조정이 완화적 통화정책 종료를 의미한다고 평가
- 한편 기시다 총리가 아베노믹스 정책과 거리를 두기 원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구로다 현 일본은행 총재에 비판적인 야마구치 전 부총재가 차기 총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. 그 동안 아미야 현 일본은행 부총재 등이 차기 총재 후보로 거론

■ 호주 무역장관, 중국이 경제 제재 철회 시 WTO 고소 재검토. 중국과 화해 의사 피력

- 돈 패럴 장관은 중국이 호주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면 중국 관련 WTO 소송을 재검토하겠다고 발언. 또한 양국 간 무역 문제는 중재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원한다고 강조. 이는 양국의 무역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신호로 평가

■ 베트남, 금년 경제성장률 8%대로 1997년 이후 최고치 기록 예상

- 통계청은 금년 성장률 추정치가 8.02%를 나타내 당초 목표치(6.0~6.5%)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. 특히 국내소비 및 수출 호조가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. 부문별로는 건설(7.78%), 서비스(9.99%) 등이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2/3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2월 시카고 PMI, 스페인 12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달러화, 내년 인플레이션 완화 전망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- WSJ

(An Epic Dollar Rally Goes Into Reverse—and Investors Expect Further Declines)

- WSJ 달러화 지수는 9월에 연준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'01년 이후 최고치 기록.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락세 지속. 그리고 최근에는 달러화가 고평가 상태이며 이에 달러화가치가 결국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증가
- 이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내년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혹은 금리인하 기대 등에 기인. 일부에서는 미국의 정부부채 증가 등도 반영한다면 내년에 달러화가치가 현 수준에서 10%~15%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
-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및 유럽의 에너지 위기 완화 가능성 등 여타국 경제 전망 개선 등도 달러화 약세 요인(Standard Chartered)

■ 원자재 가격 상승세, 낮은 재고 등으로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 - 블룸버그

(The Commodities Boom Will Continue in 2023)

- 블룸버그 원자재지수(BCOM)는 6월 정점을 통과 후 최근 20% 하락했으나 '08년 및 '11년 최고치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. 유가의 경우 연초 배럴당 125달러로 정점 기록 후 최근 80달러 수준을 기록. 다만 이는 '08년 최저치보다 35달러 이상 높은 수치
-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 및 글로벌 성장둔화 등 거시적 여건은 원자재 가격 인상 압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. 그러나 낮은 재고수준 및 제한적인 추가 생산여력 등 미시적 요인들이 오히려 내년 원자재 가격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
-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신규 개발 프로젝트 관련 투자 확대가 필요. 그러나 현 상황에서 내년 유의미한 투자 증가는 기대난

■ 미국 인플레이션,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- WSJ

(Inflation Takes Biggest Bite From Middle-Income Households)

- '22년 중산층 가구의 구매력은 전년대비 2.9% 감소한 반면 저소득과 고소득 가구의 구매력은 각각 1.5%와 1.1% 증가(미국 의회예산처). 이는 중산층이 주로 구매하는 상품(자동차, 휘발유 등)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했기 때문
- 반면 저소득층은 구인난 속 임금상승과 정부지원 강화 등으로 소득개선이 발생. 한편 내년도 경기침체 및 이에 따른 기업 해고 증가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여파는 비숙련 노동자가 많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

■ 영국 청년층 노동자의 경제활동 포기,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 - WSJ

(Britain's Youngest Workers Are Too Sick to Work)

- 코로나 감염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10% 증가. 특히 16~24세, 25~34세 등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수가 급증(각각 29%, 42%)
-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청년층 노동자의 경제활동 포기는 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임금인상 경쟁으로 연결. 이는 40년 만의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는 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

■ 미국 출산율 하락,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- Financial Times

(America's shrinking population is here to sta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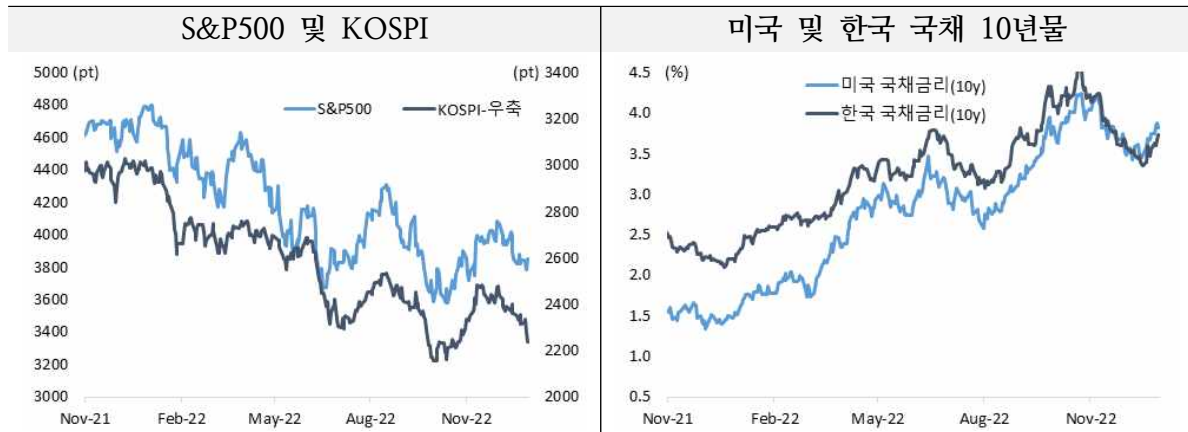
■ 연준, 금융위기 발생 시 최종 대출기관 역할에 충실할 필요 - WSJ

(What Walter Bagehot Could Teach the Fed)

■ 영국, 영란은행의 통화긴축 고려 시 해외자금 조달 확대가 중요 - Financial Times

(UK will have to rely more on the kindness of strangers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